

불수룩 아름다운 우리문양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사진으로보는 한국미-무늬' 펴내



◀관룡사대웅전 불단의 '꽃, 새'.



◀얼굴무늬 수막새

원형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문화예술 산업의 전반기에서 재창조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고유의 무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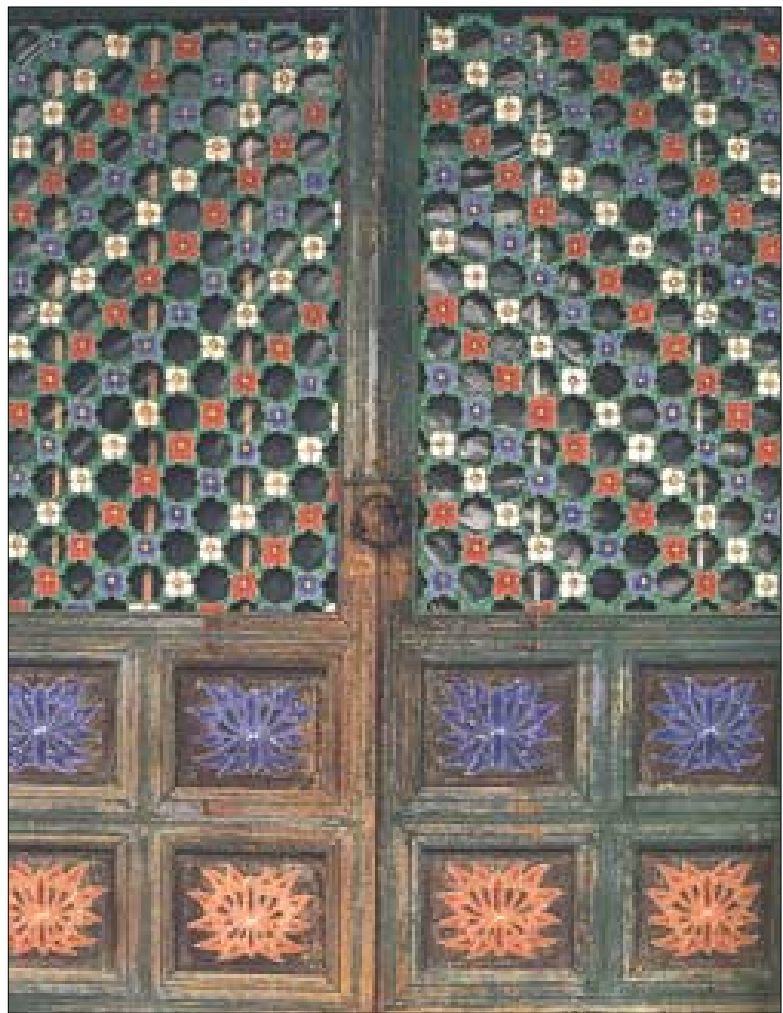
이 책은 한국의 전통무늬를 건축, 금속공예, 석조, 불상 등으로 크게 나눠 3백7점의 컬러사진에 담았다. 여기에 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이 각 문양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무늬 용어도

최대한 한글화했다. 이 소장은 이 책에서 "불교의 무늬는 꾸밈과 가끔의 미학"이라며 "살을 풍요롭게 해주는 마르지 않는 젖줄"이라고 불교의 문양을 극찬했다.

이 사진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문양은 '얼굴무늬 수막새'에 드러난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조형미다. 이를 그대로 사진집에 옮기기 위해 카메라의 앵글 맞추기를 수십차례, 조소작품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섬세함을 잘 표현했다. 마치 바로 옆에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마곡사 대광보전문의 소솔꽃 무늬와 빛살금강저 무늬 향호, 내소사 대웅보전의 소솔꽃 무늬 창호, 성철사 나한전의 소솔꽃무늬 등의 탁월한 미감을 짙어 놓은 것도 안지 특유의 촬영 노하우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불교문화재는 보면 볼수록 더욱더 새롭고 아름다운데 안지현씨는 "앞으로 단청, 범종, 수원 화성, 사찰의 수문신장, 부도 등을 소재로 상반기 안으로 10권 정도를 묶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값 2만8천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신흥사명부전 문의 '빛살꽃 무늬'

사진작가 안장현(56)씨가 30년 동안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우리 산하 곳곳을 발품 팔아가며 앵글에 담아 정리한 문양집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우리 곁에 전해졌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이 기획한 '사진으로 보는 한국

건축·공예·석불등 307점, 용어도 쉽게 한글로

미-무늬' (호영 펴)는 지난해 12월 경 주 남산의 문화재 사진집 '석불-돌에 새긴 정토의 꿈' (한길아트 펴)을

발간한데 이어 두 번째 사진집이다. "한국의 전통문화 특히 불교문화 속에 새겨진 여러종류의 무늬들을

기에 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이 각 문양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무늬 용어도

류현경 나이프 페인팅 '흔적展'

23~29일 경주교육문화관

넓고 평평한 캔버스위에 아크릴물감을 흠뻑 묻힌 나이프를 밀고 끌면서 그린 강한 흔적들을 한데 모은 류현경씨의 '나이프 페인팅, 흔적展'이 23일부터 29일까지 경주교육문화관에서 열린다. 흔하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전시회다.

우선 붓대신 나이프를 캔버스에 밀착해 동양화에서 '남'을 치듯 일회씩 밀고 끌며 강한 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자못 흥미롭다. 제목이 '흔적'이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간이 머물다가 지나간 우리 일상의 흔적처럼 물감의 흔적이 수없이 반복돼 캔버스 위에 차곡차곡 집적돼 있다.



◀류현경씨의 '흔적 V'

미술평론가 박영택씨는 "류씨의 작품은 나이프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굳어진 모더니즘의 틀을 깬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했다.(054)770-9193

문화소식

디지털 장편영화 '뽀뽀' 도비영화제 경쟁부문에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김지현(34) 감독의 디지털 장편영화 '뽀뽀'가 13~1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5회 도비 아시아 영화제 디지털 경쟁부문에 4월 8일 개막하는 제 27회 홍콩 영화제 아시아인 DV부문에 진출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뽀뽀'는 10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 뽀뽀가 죽자 애원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주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뽀뽀의 한 장면.

공 수현이 주변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진돗개 '자비'를 키우는 한 바구니 스님과 죽은 개를 위해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는 주인공의 어머니 등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 무대에

30일까지 연강홀서

97년 호암아트홀에서 초연한 '난타'는 식당 요리사들이 펼치는 에피소드와 사물놀이의 리듬을 결합한 타악 퍼포먼스로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1백 26만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상품화한 대중예술'의 대표격이었다. 이 기세를 몰아 서울 종로5가 연강홀에서 30일까지 무대에 올리는 타악뮤지컬 '야단법석'도 스님으로 분장한 젊은 타악연주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난타공연이다. 시종 고막을 찌는 듯한 고음의 서양식 난타와는 달리 불교식으로 느린 템포의 선종(禪風) 타악 연주를 도입한게 다르다.

공연 제목인 야단법석은 사부대중을 상대로 석가모니가 야외에 단을 쌓고 법문을 설했던 야외법회에서 유래된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두들기고 춤추는 가운데

자아성찰의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전통음악과 타악연주가 신명나게 펼쳐질 이 공연에는 범고, 운판, 목어, 대종 등 불교사물을 비롯해 목탁과 바라, 죽비 등이 타악기로 대거 등장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목탁 3개를 나란히 배열해 변형 목탁악기를 설치한 것은 기발한 발상으로 관객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뮤지컬의 줄거리는 전생애 축생계에 있던 물고기·새·개 등이 사

느리지만 신나는 템포 '禪風' 연주

람으로 환생, 산사에서 행자생활을 하지만 전생의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해 좌중우돌하나 결국 음악공양을 함께 하며 남을 배려하는 화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무대위에서 범고, 운판, 목어 등 불교사물을 두드리며 신명나게 춤추는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공연장면.

특히 이번 공연은 이야기보다 인물 묘사에 비중이 실려 있다. 허공스님은 쉽게 흥분하지만 일단 무엇을 두드리고 나면 흥분이 가시는 스타일. 아공스님은 항상 경전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여유와 내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는 성격. 무공스님은 모든 일에 멋과 예를 강조하며 '폼생폼사'의 코믹한 행동으로 일관한다. 지난 2월 9일 양평 사나사에서 삭발식을 거행한 스님역할의 배우들은 관객들이 진짜스님인지 여부로 설전을 벌일 수 있도록 역할 소화해 충실

했다고 의욕이 대단하다. 이외에도 출연하는 단원 대부분은 KBS국악대 경연과 전주대사습놀이등에서 장원을 휩쓴 20대 후반의 차세대 유망주들로 구성돼 음악적인 수준은 크게 격정을 안해도 될 것 같다.

평일 저녁 7시30분, 토 오후 4시, 저녁 7시30분, 일 오후 4시. (02)929-2183.

김주일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12월 12:30 군법당 순례법회
08:30 라디오 열린마당	부산 FM 89.9 MHz	13일 07:40 서울대중사 특별법문
12:00 정오종합뉴스	광주 FM 89.7 MHz	14일 20:30 구분일의 명상태고 명상음악
15:05 음악의 마을	대구 FM 94.5 MHz	15일 23:24 BTN 주간뉴스
17:10 무명을 밝히고	광주 FM 96.7 MHz	16일 17:50 한국의 명찰
21:00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대전 FM 100.1 MHz	17일 21:50 성운스님의 불경강좌
23:05 불교문화산책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 무명을 밝히고 '조사선의 법맥을 찾아서' (13일 17:10~18:00) - 불교계 소식과 화제를 전해주는 불교시사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는 13일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중용 스님을 초대해 한국 조사선의 법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진행한다.
- 불교텔레비전: △ 서울대중사 특별법문(10일~17일 07:40, 15:20, 20:00) - 부처님 출가절(음력 2월 8일)과 열반절(음력 2월 15일) 기간 동안 '서울대중사 특별법문'을 방송한다. 이 법문은 서울 스님이 1999년 동안 거결제 기간동안 백양사에서 <백양록>을 강의한 내용. <백양록>은 운문종 선승 설두중현이 <전등록> 1,700 공안 가운데서 수행자의 참구대상이 될 100칙을 골라 하나하나에 계승을 단 '본적(本則)'에다가 환오곡근이 종자나 착안점을 제시한 서문과 단평을 붙인 것.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먼 곳일 제 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팔모조립등

중 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